

[기획]

★ 2007년 뜬 별

다사다난했던 한 해, 수많은 인물들이 이목을 끌었다. 각 분야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곁을 떠난 인물과 권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명사들도 있었다. 정해 년 한 해 회제가 됐던 국내외 인물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2007년 진 별

대통령 당선 이명박 '뜨고'



이명박

신지애

오세훈

심형래

전도연

반기문

고어

사르코지

오바마

메드베데프

◇국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선거운동 기간 중 압도적인 여론지지율을 유지, 직선제 이후 최고의 득표율(48.7%)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내걸어 당 안팎에서 환경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지난 10월 세계적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환경영웅 45인'에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과 함께 포함되기도 했다.

▲프로골퍼 신지애 = 프로 2년차로 올해 국내 18개 대회에 출전, 9개의 우승컵을 쓸어 담았다. 승률 5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신지애는 다승왕과 KPGA 대상은 물론 삼금왕(6억7천450만원)과 최저타수상(70.02타)까지 휩쓸며 그야말로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 =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최연소(45) 민선 서울시장'이란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당선된 뒤 올 한 해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도입 '3% 퇴출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으로 이목을 끌었다.

▲심형래 감독 = 6년여의 제작기간에 걸쳐 완성한 SF 블록버스터 '디 워'가 예상을 깨고 8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올해 최고의 화제 감독으로 떠올랐다.

▲영화배우 전도연 = 이창동 감독의 복귀작 '밀양'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연기해 찬사를 받았던 전도연은 한국 여배우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 꼽히는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다.

◇국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지난해 10월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반 총장은 올해 1월 2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 첫 한국인 사무총장 시대를 열었다. 최근 유엔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남극을 방문하는 등 환경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엘 고어 전 미 부통령 = 2000년 미 대선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패한 고어 전 부통령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 환경운동가로 변신했다. 지구 온난화를 경고한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아카데미상을 수상한데 이어 노벨 평화상까지 거머쥐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 이민 2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대통령에 선출됐다. 취임 일성으로 '100일 개혁'을 약속한 그는 공약대로 개혁방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등 무기력에 빠진 '프랑스 병(病)' 수술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 상원의원 =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민주당의 오바마 의원은 올초 출마 선언 후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등 각계 인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인기가 오르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제1부총리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한 메드베데프 부총리는 푸틴의 오른팔. 푸틴 대통령과 같은 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일찍부터 푸틴의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마이클 훈다 미 상원의원 =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주역. 지난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이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레인 에번스 전 의원을 대신해 결의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 결의안 통과와 불씨를 되살렸다.

◇국내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참여정부 출범 후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고속승진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 서열 2위에서 '화력 위조' 파문의 장본인인 신정아씨를 비호하고, 신씨와의 '로맨스(?)'가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는 등 나라의 길을 걷게 됐다.

▲전군표 전 국제청장 = 행정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사무관 시절부터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조사통으로 세무행정과 최고 자리인 국제청장까지 올랐지만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현직 국제청장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신정아 전 성곡미술관 학예실장 = 올해 여름 우리 사회를 강타한 초대형 사건의 주인공. 신씨는 7월 4일 35세의 젊은 나이에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돼 선망의 대상이 됐지만 곧바로 드러난 허위 학위 사실로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이 취소되고 동국대 조교수직에서도 파면됐다.

▲장전(長田) 하남호 (전 남도예술고등학교 교장) = 60년대말 국전 4회 연속특선의 기록을 세우면서 필명을 날리기 시작한 장전은 사도(師道)와 서도(書道)를 함께 걸어온 호남을 대표하는 명필이다. 지난 10월 4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전통 도예가 고현(古現) 조기정 = 고려청자 재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대표적인 청자장인. 고현은 지난 78년 강진청자사업소 재건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형문화재 청자기능 보유자, 광주시 지방문화재 제5호로 지정됐다. 향년 72세로 생을 마쳤다.

▲이양우 전 전남도 교육감 =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이양우 전 전남도 교육감도 향년 80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참모의 도움 없이도 국감감사 답변 자료를 준비할 만큼 박식함과 소탈한 성품으로 덕망을 쌓아온 광주·전남 교육계의 대표적 원로였다.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 윤한봉

(59) 전(前) 민족미래연구소장도 지난 6월 27일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80년 5월 이후 27년 동안 '광주항쟁'이란 거대한 등짐을 지고, 미국으로 망향해 5월 정신개수에 힘쓰다가 1993년에야 수배가 해제돼 귀국했다.

◇국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 2차 대전 이후 세대가 배출한 첫 총리이자 재후 최연소 총리라는 화려한 수사와 함께 지난해 9월 취임했다. 그러나 각료들의 실언과 정치자금 문제 등의 악재들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물러났다.

▲멜니 전 러시아 대통령 = 구소련 해체 이후 첫 러시아 대통령 일을 맡으며 러시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유 자산의 민영화 과정에서 벌어진 부패와 정경유착 등 '부패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썼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생긴 심장질환으로 지난 4월 숨졌다.

▲모험가 스티브 포스트 = 영국 해협을 헤엄쳐 건너고 철인 3종경기를 완주하며 기구와 비행기로 무작특 세계일주를 해낸 그는 기구와 비행기, 글라이더, 선박 등 종목을 가리지 않는 도전으로 수많은 이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지난 9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개인 비행장에서 단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한 뒤 실종돼 아직까지도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올해 63세.

▲빈민 구호 활동가 피에르 신부 = 1949년 노숙자 자립 공동체인 엠마우스 운동을 창시한 이후 50여년을 프랑스의 노숙자 및 빈민 구호 활동에 헌신한 피에르 신부는 프랑스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명이지만 지난 1월 폐 감염증 악화로 인해 94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엘친

피에르

아베

윤한봉

이양우

조기정

하남호

신정아

전군표

변양군

신정아 파문 변양군 '지고'

Advertisement for Samsung Home Cinema systems. It features the headline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and '최고음의 특어 기술력! 생체, 소음 저감 장치 채택'. The ad shows various home theater models and lists their featur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베트남 국제결혼' (Vietnam International Marriage). The headline is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International Marriage! Choice is important). It lists benefits like '800만원대로 매달을 맞이하세요'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062)232-8966' and '010-5256-8966'.